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26호 현대불교  
2007년 5월 2일(음력 3월 16일) 수요일 / 불기 2551년  
법공양 페이지

21

# 욕심부리지 말고 닥치는 대로 능글하게 넘어가라!

형제 법우님들, 앞으로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갈 것만 아니라, 더욱더 마음을 개방해서 천체를 앉아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 스스로, 근본으로부터 배울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정밀까지 절실한 일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 법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비유해서 조그마한 티끌만도 못한 것을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처사님이라고 하시죠? 그분이 사물을 못 넘긴다고 의사 셋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몸에 쫓은 거 다 빼고 죽든지 살든지 나갑시다." 하니까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더군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무조건! 무조건 말입니다. 이유는 불문에 붙이고 무조건 이 사람은 누구든지 데려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왜 그랬느냐? 상원사(上院寺)를 지을 때에도 그랬었지만 뭐든지 무조건이지 거기는 이유가 붙는 자리가 아니다 이 소입니다. 무슨, 어려워서 못 살겠네, 죽겠네, 이것이 잘못됐네, 저것이 잘못됐네 이런 게 붙으면 그런 진짜 부처님 법이 아닙니다.

부처님 법이란, 여러분의 법이란, 그 묘하고 슬기롭고 진짜 아무것도 붙지 않는 그 자리에서, 눈은 셋째같이 따지고 한생각은 붙은(주먹을 쥐어 보이시면서) 솜은 그 무조건적인 생각! 예, 이런 것이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거기는 크고 작고 없습시다. 나는 이렇게, 이렇게 꼭 하겠노라! 하고 주먹을 붙은 쥘 때, 마음속에서 정말 절절한 눈물을 흘리지만 눈은 생동생동하게 더 뚝그렇게 따지고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나는 이러한 그 '무조건'의 생각,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 법이 담 넘어가듯 '주인공이 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주인공 따로 있고 여러분 따로 있습니까? 그것도 관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혜 물리가 터져야 알 겁니다. 아마, '네가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 하는 거지.' 그게 관법입니다. 또 지금 내가 무조건이라고 그런 겁니다. 어떠한 문제를 꼭 해야만 하겠다 할 때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거기에 아무 이유가 붙지 않아야 된다고 소입니다.

그래서 망상은 좋은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는 수련 재료이자 바로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망상을 끊지 않고 여여하게 그대로 넘어가는 무조건! 망상을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니까 망상이지, 아니, 누가 망상이라고 이름을 지어 놔는지, 그것도 사람이 지어 놔지 누가 망상이라고 지어 놔졌습니까? 그것에 왜 흔들리니까?

즐창 말하지만, 이 세상에 누가나 다 수억 겁에 걸쳐서 엄청난 그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에 끌리고 저기에 끌리면서 진짜 부처님의 골수를 모르게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 겁니까? 그래서 부처는 너무 가까워서 위 숙련하고 아래 숙련하고 똑같이 작용을 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기와 아주 가깝게 있으니 멀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언젠가 한 번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요새 암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 암이라고 하는 이름에 그만 끄달려 포기를 해 버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백혈병이라고 해서 포기합니다. 핏속으로 씌어 들어간다고 해서 포기합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이 포기를 하니까 포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이 절실히 느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골수에 전부 병이 들어서 씌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발레가 뼈를 끊어 먹는다고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을 여섯 군데를 다니면서 진찰을 해 봐도 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핏속을 끊어 먹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알면 좋게 모르니까, "그러는 끊어 먹는 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감기 조금 들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한 거니까 무조건, 이런 절대로 이런 병이 댘서는 안 된다고 아주 작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름을 모르겠습니까만 저 원주 소초면인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집을 팔고 땅 있는 걸 다 팔았습시다. 나중에 정말이지 남의 행랑채에 들어 있어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공부해 모르기 때문에 방편상 그렇게 한 거죠. 이 부처님 법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약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약입니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아, 갑자기 한 관 살 돈은 있느냐?" 그러니까 있네요. 갑자기 한 관에 2천 원이라고. 그 2천 원이치를 사 가지고 가서, 갈아서 즙을 내서 거기에 미숫가루를 멀겉게 타서 간식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또 맛있게 해 먹으려면 누런 설랑 사다가 기미해서 그냥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글썽, 그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로 믿었던 겁니다. 진짜로! 아는 사람 같으면 그게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었죠. 자식들은 쥘 형제나 되고, 선 살에 또 늦게 아들을 낳아 가지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살고 계시고 선 살에, 늦게 낳은 그 아들의 턱을 보고 지금까지도 사시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아리송한 게 부처님 법입니다. 아주 정말이지 이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가끔 한 처사님한테도 그랬지만, 이렇게 해 본 예가 있습니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보이는 세계에 나오는 모든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피 한 방울이 말해줍니다. 이런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난 어저께도 그저께도 그저저께도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은 한없이 쏟아지고 누구한테 보일 수도 없어서 보이지 못하나마 눈이 생동생동하게 떠지면서 기둥이 와짜(주먹을 쥐어 보이시면서) 쳤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지금 정신체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로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진 채 한생각을 내서 통글러서 모든 걸 해 나가신다면 우리나라는 진짜 융성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너무 느린 걸 많이 많은데, 조그만 그릇에다가 재료를 많이 부어서 막 흘러내려서 부작용이 나 가지고 저렇게 야단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립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럼으로써 자라는 새싹들이 주인이 돼서 살 때, 그리고 그 밑으로 밑으로 내내 섰(禪)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도록 지키고 나갈 수 있게끔 법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학술적으로 하지 않고, 경전으로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판말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죠. "풀포기 하나도 생명이 있고 이삼전심으로 전법하고, 같이 공생(共生)하고 공식(共食)하고 있는 데 무엇이 부처님 법이고 무엇이 부처님 법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톨릭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다 와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디 호텔을 정해서 설법을 한다 하고 기발을 하나 심지어는 가톨릭교 신부님 목사도 모입니다. 어떤 질문을 해도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냥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해 줄 수 있는냐고, 나중에 저녁 식사를 대접해 주면서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도 남에게 해를 대답도 하지 않고 어떤 거 하나 나쁘다는 것도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해 보아야 고깃덩어리가 얼마나 잘났으며 이 고깃덩어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러나 부처님의 골수는, 여러분의 누진(漏盡)으로서 오신통(五神通)을, 발바퀴를 벗어나야 바로 발바퀴를 굴릴 수 있으며, 발바퀴를 벗어나야 바로 이 마음이 천백역화신으로, 분신으로 화해서 바깥으로 전 우주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를

들라거리면서 이걸로 쓸 거는 이걸로 쓰고, 저걸로 쓸 거는 저걸로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지구만 해도 이 안의 세계를 위하여 지구 바깥으로 세 개의 소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냐? 지구 바깥에 법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계라는 그 자체는 무엇인가? 우리네들의 마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네들 털구멍을 통해서 나고 들고 하는 것처럼, 지구도 살아있는 생명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물질, 혹성이기 때문에 많은 물질들이 입자를 통해서 분자가 돼 가지고는 세 가지 소임을 합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단계 단계 단계... 그래서 지구 바깥으로 그 단계가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소임을 맡은 단계입니다. 안으로 들어와 바깥으로 내는 소임, 안으로 바깥으로 전부 통신하는 소임, 그리고 책정을 하는 소임, 세 가지들 그렇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으로 들어와 밖으로 내는 것만 보더라도 더 넓게 보면 이 지구 안으로 모두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발을 붙이고 다니는 것도, 남극 북극에서 그 소임을 하면서 들어오고 내기 때문입니다. 남극이 풍누는 데라던 북극은 먹어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나쁜 건 내놓고 좋은 건 들여놓듯이, 지금 인간 혹성 자체가 그렇게 살듯 지구도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네들 마음 자체의 보이지 않는 입자, 즉 말하지만 화신들이, 내 몸뚱이도 보호하러니까 그렇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아니 인간에겐 5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다섯 단계로 보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걸어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 잡아당기는 것과 끌려들어 가는 것의 양면을 다 책정을 잘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세균성이 들어와도 우리가 들어놓을 건 들고 내놓을 건 내내야만 하는 작업도 있고, 이 허공에도 지금 세균성이 그냥 육식 클러스클하니까요. 안에서 그렇게. 또 우전성으로 온다가 영계성이란다가 이런 것도 인연에 따라서 들린다 침입을 하게 방치가 된다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죠. 인신을 했어도 인신한 그 자체에 자꾸 집어넣기 때문에 그 얘기가 이 세상에 대통령감인데도 소통령도 못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얼른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래세계 정신세계의 노예로서 산다 이겁니다. 이런 맘대로 살 수가 없어,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레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부처님께

22면으로 계속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향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신 모든 통증과 신 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율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1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 본 원에서는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여 집중(3개월 속성) 개인지도 합니다.
- ◆ 불교의식을 모르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합니다. (스님포교사, 재가불자 법사교육)
- ◆ **교육과정**
  - 일상 상용반: 도량서 조석종성
  - 예 경 편: 상단예불, 각단예불 (미타, 명부, 관음전 등)
  - 불 공 편: 삼보통칭 중단퇴공 각단불공(관음, 지장, 신중청 등)
  - 제 의 식: 천도제 49재 예수재 점안의식 시다림 <바리춤>: 요잡바라, 관음바라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법고무 <나비춤>: 사방요신, 다계 도량예 운심계
  - 시식과정: 관음시식, 상용영만 화엄시식, 구병시식
  - 법사과정: 경전을 문법과 전문적인 한문공부로 경전을 배웁니다.
- ◆ **개강일자: 2007년 6월 5일**  
(법패반: 화요일 오후 3시, 상용반: 화요일 오후 5시)
- ◆ **강 의 일: 매주 화(목)요일 오후 3~5시, 5~7시**
- ◆ **신청방법: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접수**

**대한불교대학 법패 연구원 수림사**  
서울시 종로구(종로5가 3번 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011-9769-8868